



◆ [Focus]

- (IPEF) 제1차 인도·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식 협상 종료

◆ [What's News]

- (IRA) 백악관 IRA 세액 공제 지침 내 친환경 차량 부문 주요 내용
- (반도체) 산업안보국(BIS), 36개 중국 기술기업 수출통제 목록 등재
- (대중규제) 상원, 화웨이 대상 금융제재 촉구 초당적 법안 제출
- (대중규제) PCAOB, 중국 상장사 회계정보에 완전한 접근 확보
- (경제지표) 美 11월 소매 판매 실적 저조, 내년 경제 악화 여론 고조
- (배터리) 美 포드와 中 CATL, 미국에 배터리 공장 신설 추진 중

◆ [Top Headlines]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1. [IPEF] 제1차 인도·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식 협상 종료

가. 개요

□ 첫 인도·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 실무 협상 완료(12.10~12.15)

○ 회원국은 IPEF의 '4개의 아젠다'(4 Pillars)* 에 대한 심층 협상 진행

- 14개 회원국 협상단은 9월 LA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4개의 주요 의제*를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,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화 등 각국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관련 논의

* △무역, △공급망, △청정경제, △조세 및 반부패

○ 무역대표부(USTR), 제1차 IPEF 협상 결과 관련 성명 발표 (12.15)

-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USTR 동남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대표와 상무부 고문 겸 수석 대표를 필두로 협상단 구성
- USTR은 무역 의제(Pillar I)에 집중하여, △무역 원활화, △지속 가능한 농업, △회원국 간 서비스 규제, △제도의 투명성 및 수출 규제 관행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발표

<9월 합의된 무역 의제(Pillar I) 내용>

주제	내용
노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제 노동권에 기반한 법안 채택 및 장려 ▪ 참여국의 노동권 지원을 위한 투자 ▪ 포괄적이고 공정한 무역 관행 보장
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참여국의 환경법 및 환경 관련 무역법 강화 ▪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▪ 다자간 환경 협정에 따른 국제적 책임 수행
디지털 경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보장 ▪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경제 성장 유도 ▪ 신기술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
농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식량 안보와 지속적 농업 관행 발전을 위한 지원 ▪ 농업 공급망과 복원력 향상 프로세스 개선 ▪ 식품·농업 수출에 대한 규제 및 행정 요건 협력
투명성 및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참여국 내 정치적 투명성 증진 및 지원 △WTO의 규칙에 기반을 둔 규제 관행 추진 ▪ 기존 법률과 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
경쟁 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경쟁적 시장 보장을 위한 협력 강화 △디지털 시장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법 채택
무역 협의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관 절차 간소화로 통한 무역 촉진 ▪ WTO의 모범사례를 통해 무역의 디지털화, 물류 및 운송 해결 능력의 투명성 촉진 ▪ 전자 상거래 관세 조항과 이니셔티브 모색
포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여성,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경제 참여 방법 강화 ▪ 소외 계층이 겪는 경제적 장벽 제거 방법 공유
기술지원 및 경제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역내 양자 간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 지원 ▪ 인도·태평양 표준 무역 조항과 새로운 이니셔티브 수립

[출처: 상무부 보도자료]

○ USTR, “추가 협상을 통해 잔여 의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”

- 성명문은 이번 1차 협상에서 상무부가 무역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를 두고 참가국 협상단과 심도 있는 아이디어를 교환했으나 구체적인 혜택 제공 방안은 추후 협상에서 다룰 것이라고 발표
- USTR은 이번 협상의 최종 결과를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 위원회에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며 향후 IPEF 협상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힘.
- 하지만 백악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이번 1차 협상으로 도출된 구체적인 결과나 논의 사항에 대한 전문 공개 보류 (12.15)

나. 제1차 협상에 대한 현지 예상 및 요구

□ “제1차 협상은 IPEF의 ‘구속력’과 ‘실행 가능성’ 강조했을 것”(12.15)

- 인사이드 트레이드, 협상단 내 소식통을 인용하여 내용 예상
 - 이번 1차 협상에서 기존의 무역 협상과 달리 구체적인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며 바이든 정부가 지난 장관회의에서 강조했던 “새로운 접근”에 집중한 것이라고 추측
 - 특히 모든 회원국 협상단이 무역 분야 공통 관심사*에서 ‘원칙적 합의’(Common Principle)를 이뤘을 것으로 예상
 - * 회원국 간 무역 규제 관행, 경제협력, 및 기술지원
 - 또한 소식통은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의제 협상보다 회원국의 참여도와 관심사를 높이기 위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혜택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언급

□ 폴리τικο, 향후 IPEF 협상 진전을 위한 다섯가지 제안 발표 (12.9)

- 미국의 진지하고 꾸준한 접근과 신속한 합의 필요
 - IPEF 참가국이 세계 경제의 40%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,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섯 가지 제안 제시
 - (1) 9월에서 누락된 관세와 원산지 규정 합의를 통해 미국의 진지한 접근 부각, (2) 인프라 보조금 등 지원으로 참가국의 관심 유지, (3) 4개의 의제를 두고 독립적인 협상, (4) 행정부·입법부 간 갈등 해결, (5) 미국의 역내 주도권 회복을 위해 신속한 협상

* 자료 : USTR 보도자료(12.15), 상무부 보도자료(9.9), 폴리τικο (12.9), 및 기타 언론

□ [IRA] 백악관 IRA 세액공제 지침 내 친환경 차량 부문 주요 내용

- 백악관은 청정에너지·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대한 IRA 법안의 세액공제 지침을 발표(12.15) * Building a Clean Energy Economy: A Guide to the IRA's Investments in Clean Energy and Climate Action
-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, 에너지 비용 감축, 기후변화 대처, 환경 오염 감소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국내 사업에 대해 목적, 자격 요건, 이용 가능 기간 및 기타 주요 세부 정보에 대한 배경 정보 제공
- 이 중 차량 부문은 △ 신규·중고·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와 △ 대체 연료 충전 시설, △첨단 자동차 제조, △미국 내 제조 전환 사업에 대한 대출·보조금 지급 계획 포함

<IRA 전기차 부서별 프로그램>

(단위: 달러)

부서	IRA 조항	세금 코드	프로그램	지원 액수
재무부	13401	30D	신규 전기차 세액공제	최대 7,500
	13402	25E	중고 전기차 세액공제	최대 4,000
	13403	45W	상업용 전기차 및 친환경차 전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각 30%, 15%
	13404	30C	대체 연료 충전소 지원금	사업 6%(10만 상한), 개인 30%(1,000 상한)
에너지부	50142	-	첨단 기술 자동차 제조 및 용자 프로그램	총 30억 (비용의 80% 상한)
	50143	-	국내 제조 전환 보조금	총 20억 (비용의 50% 상한)

[출처: 백악관 IRA 가이드북]

* 자료 : 백악관 보도자료(12.15)

□ [반도체] 산업안보국, 36개 중국 기술기업 수출통제 목록 등재

-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(BIS)은 주요 반도체 장비, 인공지능(AI) 등 36개 중국 기술기업*을 수출통제 목록(Entity List)에 추가(12.15) (https://public-inspection.federalregister.gov/2022-27151.pdf?utm_source=federalregister.gov&utm_medium=email&utm_campaign=pi+subscription+mailing+list)
 - BIS의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당시 미검증 기업 목록(UVL)에 포함된 중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치로 고려되며, 이번 조치에 기존 25개 중국 UVL 기업은 목록에서 제외됨.
 - * 규제 당국은 UVL에 등재된 기업을 60일간 검증한 후 수출통제 대상으로 격상
 - 양쯔메모리(YMTC) 등 반도체 기업 3개 사가 목록에 추가됐으며, 중국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 상하이마이크로전자(SMEE)도 포함됨.
 - 캄브리콘(Cambricon) 등 AI 기술 개발 기업 21곳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(FDPR)*이 적용된 관계로, 우리 수출기업 주의 당부
 - * 미국 기술·장비를 사용해 해외 생산한 제품도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대상

* 자료 : 산업안보국 보도자료(12.15), 폴리틱코(12.16)

□ [대중규제] 상원, 화웨이 대상 금융제재 촉구 초당적 법안 제출

- 공화·민주당 상원의원 4인*은 화웨이 등 중국 5G 기업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 참여를 금지하는 일명 'NETWORKS Act' 법안 제출
 - * 톰 코튼(공화-아칸소), 크리스 밴 홀렌(민주-메릴랜드), 척 슈머(민주-뉴욕), 릭 스콧(공화-플로리다)
 - 동 법안은 화웨이 등을 재무부 특별제재대상국가(SDN) 명단*에 등재하여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동결하는 방안 제시
 - * Special Designated Nationals List :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관리하는 일종의 금융거래 블랙리스트로, 명단에 등재된 단체(개인)의 미국 은행 계좌 보유가 금지되고, 미국인이 해당 단체(개인)와 거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.
-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 확대 중
 - 지난 11.25 미국 정부는 화웨이, ZTE 등 통신장비 국내 판매를 금지

* 자료 : 코튼 상원의원실(12.13), 연방통신위원회(FCC)(11.25)

□ [대중규제] PCAOB, 중국 상장사 회계정보에 완전한 접근 확보

-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(PCAOB)는 중국계 미국 상장기업 대상 현지 회계 감사에 '완전한 접근'(complete access)을 확보했다고 발표(12.15)
 - 이를 지난 '20년 제정된 '외국기업책임법'(HFCAA* :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)의 성과로 평가
- * HFCAA : 외국계 미국 상장기업이 3년 연속 당국의 회계 감사를 회피할 경우,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및 기타 증권 거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
- 중국계 상장기업의 미국 증시 퇴출은 당분간 모면 전망
 - HFCAA 발효 후 3년이 되는 '24년 3월까지 중국계 기업이 상세 회계 정보를 미국 규제 당국에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 증시에서 퇴출
 - 하지만, 중국 정부가 미국 당국의 회계정보 접근을 허용함에 따라, 일단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148개 퇴출은 보류 전망
 - PCAOB는 심층적인 회계 감사를 통해 중국계 기업의 미국 회계법 위반을 감독하고, 중국 당국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구하겠다고 밝힘.

* 자료 : PCAOB(12.15), 폴리티코프로(12.15)

□ [경제] 美 11월 소매 판매 실적 저조, 내년 경제 악화 여론 고조

- 11월 소매 판매 실적, 울들어 최대 하락 ⇒ 리세션 전조 해석 짐중
 - 美 인구조사국(Census Bureau) 발표(12.15)에 따르면, 미국 내 11월 소매 판매 총액은 6,8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-0.6% 기록
 - 자동차·부품(-2.3%), 가구(-2.6%), 전자·가전(-1.5%), 건축자재(-2.5%) 등 판매가 크게 하락. 온라인·백화점 추수감사절 판매 실적 저조 원인
- * 인플레이션으로 의료비(0.7%), 생필품(0.8%) 및 회식(0.9%) 지출은 증가세
- 미국 내 내년도 경제 악화를 전망하는 여론 과반 초과
 -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(12.3~7 실시), △미국인 중 52%가 내년 경제 악화 전망, △경제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 65% 기록

* 자료 : 미국 인구조사국(12.15), 월스트리트저널(12.16)

□ (배터리) 美 포드와 中 CATL, 미국에 배터리 공장 신설 추진 중

- 양사의 합작 공장 신설 시 미·중 분쟁을 피해 세액공제 수혜 가능
 - 포드와 중국 배터리업체 CATL(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)의 예상 공장 부지로 미시간주와 버지니아주 거론
 - 블룸버그 통신은, 미·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표된 본 계획이 IRA 법안 요구조건을 충족하여 포드는 향후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원가 절감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
 - 공장 완공 시, 포드가 공장 지분의 100%를 소유하게 되고 CATL은 자사 배터리 생산 기술로 공장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 예상되며 생산 배터리는 포드의 전기차 모델용 배터리로 사용 전망

* 자료 : 블룸버그(12.14)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Goldman Sachs Plans Thousands of Layoffs, Expects to Eliminate Some Bonuses (골드만삭스, 수천명 정리해고 계획) https://www.wsj.com/articles/goldman-sachs-plans-thousands-of-layoffs-expects-to-eliminate-some-bonuses-11671212043?mod=hp_lead_pos1
The Washington Post	Africa summit boasted progress, though differences with U.S. remain (아프리카 정상 회담, 성공적 종료)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politics/2022/12/16/us-africa-leaders-summit-biden
New York Times	Just How Bad Is the 'Tripledemic'? (3가지 병이 합쳐진 호흡기 질환은 얼마나 나쁜가?) https://www.nytimes.com/interactive/2022/12/16/us/covid-flu-rsv-tripledemic-data.html
CNN	Ukrainian armed forces: Russian air force planes seen in Belarusian skies during missile attacks on Ukraine (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) https://www.cnn.com/europe/live-news/russia-ukraine-war-news-12-16-22/h_7b47e2d75f4480612b5a70c8c157caaa
USA Today	COVID-19 is about to explode in China. What that could mean for the United States. (중국의 치솟는 코로나 감염률, 미국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?) https://www.usatoday.com/story/news/health/2022/12/16/united-states-impact-china-zero-covid-policy/10904612002/

Notice

주요 경제통상 일정

※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.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- (자료발간)

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규정 마련 동향 및 주요내용(US22-46)

필수 에너지·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및 주요내용(US22-45)

미국 3분기 수출입 실적 분석 및 현지전망(US22-44)

미국 양당 중간선거 공약 주요내용 및 선거결과 전망(US22-43)

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발표에따른 경제 전망(US22-42)

미국 바이오 방어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(US22-41)

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경과 및 우리 수출영향 분석(US22-40)

미국 산업안보국(BIS)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및 현지반응(US22-39)

바이아메리카 정책 후퇴로 본 IRA 전기차 전망(US22-37)

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(US22-기획4)

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
- (인터뷰) 前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 케빈 울프(12월 12일 업로드 완료)

